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주최로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아프간 돕는다

유엔, 고위급 회의 주최
1조원 이상 지원키로
"인권 존중 약속 필요"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재장악 이후 빈곤과 굶주림이 악화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국제사회가 1조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유엔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과 독일 등 국제사회는 10억 달러(약 1조1,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유엔과 산하 기관을 통해 6,400만 달러(약 752억원)를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 발표한 금액과 합산하면 이번 회계 연도에만 3억3,000만 달러(3,877억원)에 달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아프간과 이웃 국가에 5억 유로(약 6,918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관리들은 아프간에 대한 미래의 지원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운영권, 소수 민족과 여성, 소녀들에 대한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겠다는 탈레반의 구두 및 서면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행동을 봐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 메시지에서 통일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역시 탈레반의 인권 존중 수준이 "새로운 아프간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미래 관여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탈레반, 판지시르서 민간인 20여명 살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거점인 북부 판지시르에서 민간인 20여명을 살해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탈레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저항군과 교전이 발생했던 판지시르에서 최소 2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영상에는 판지시르 도로변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탈레반 전사들에게 포위돼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겼다.

한 목격자는 이 남성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탈레반에 살해된 희생자 중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게를 운영하는 압둘 사미도 포함돼있었다.

그는 저항군에게 심카드를 판매한 혐의로 탈레반에 체포돼 며칠 후 시신이 집 근처에 버려졌고 시신에서는 고문 흔적도 보였다.

이와 관련해 BBC는 아프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를 장악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민간인 피해를 우려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피난길에 올라 붐비던 시장이 텅 비고 탈출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카톨리눔고,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주독일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
10학년 학생 주당 2시간 수업

이지숙 주독일한국교육원장은 최근 헨리 테쉬 카톨리눔 김나지움 교장과 한국어 수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독일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정규과목으로 채택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 노이슈트렐리츠시 카톨리눔 김나지움은 14일(현지시간) 2021~2022학기부터 한국어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 의무선택과목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10학년생들은 한국어를 의무선택과목으로 선택하면 주당 2시간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게 된다.

제1외국어인 영어와 제2외국어인 스페인어, 러시아어, 라틴어, 제3외국어 스페인어, 고대 그리스어 외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학년들이 소화해야 할 수업 시간은 한 주일에 36시간이다.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의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아주 드물다.

주독일한국교육원은 지난 9일 카톨리눔 김나지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학교의 정규과목이 된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95년 개교한 이 학교에는 7~13학년 학생 1,000명이 다닌다.

헨리 테쉬 카톨리눔 김나지움 교장은 "한국은 독일과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지만, 이제 영어나 독일어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어를 도입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더니 우리 젊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나 자세가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고, 호기심도 많아졌다. 서로를 알아갈수록 미래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숙 주독일한국교육원장은 "한류의 확산과 국력 향상 덕에 독일 내 한국어 학습 열풍이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주 정부와 협의해 한국어가 의무선택과목을 넘어 제3외국어, 아비투어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한국어 정규과목 시범수업에서 한국어를 의무선택과목으로 선택한 학생 18명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인사말과 자신의 이름, 국적, 직업, 거주지를 말하고 쓰고 읽는 법을 배웠다. /연합뉴스

전 세계 환경운동가 피살
지난해 227건 '역대 최다'

환경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운동가들이 지난해에만 2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 글로벌 위트니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낸 연례 보고서에서 2020년 살해된 환경운동가 수가 2012년 조사 시작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최다 기록은 2019년의 212명이었다. 조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실제 살해된 이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가장 많은 환경운동가가 살해된 국가는 2년 연속 콜롬비아였다.

콜롬비아에선 불법 벌목과 채굴 등에 맞서 온 원주민 운동가 등 65명이 누군가에게 살해됐다. 이어 멕시코에서 30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됐고, 필리핀(29명), 브라질(20명), 온두라스(17명), 콩고민주공화국(15명), 과테말라(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권 재도전 의향 강력 피력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강하게 풍겼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대권 재도전 질문에 미국이 자신 외에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점에 이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혹평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도분열적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중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깎아내렸다며 미국민의 접종 정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적반하장식 발언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 정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공화당 지지층에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은 것은 트럼프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연합뉴스

■ 구독문의 : 062) 720-1014 ■ 기사제보 : jnreviews@hanmail.net 2021년 9호 I 제70호 I 값 10,000원 I 1년 정기구독료 100,000원